



정운현

Feb 21 · 🌐

오늘 많은 의견을 받았습니다.
공감, 비난이 뒤섞여 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반응이 훨씬 더 큼니다.
아래 입장문에서 밝혔듯이
이 모두는 제가 감당할 몫입니다.
동지들의 따가운 비판과 질책,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박홍근

하필 이 글이 바로 뜨는지... 눈 버렸다... 변절을 연구하다가 변절을 실천하는 사람... 경선 때부터 황당한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살더니 지금 보니 불치병이었던 셈... 아무리 식민지와 독재를 합리화하더라도 역사는 그것을 용서하지 않듯이 오늘의 이 황당한 배반의 행보를 아무리 변명해도 역사는 용서치 않으리... 폐친 영원히 삭제!!!

尹 지지 정운현 직격한 정철승 "기회주의라는 것이 뭔지를 가장 잘 보여줘"

"尹 정부에서 정운현씨는 아마도 독립기념관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정현숙 | 기사입력 2022/03/25 [12:19]

본문듣기

가 -가 +

"이른바 친일파, 즉 친일반역자들의 본질은 기회주의자라는 점"
"변절을 연구 하다가 변절을 실천하는 사람"

정철승 변호사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저격한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향해 '기회주의자'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정 전 실장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비서실장을 지낸 인물로 민주당 대선 경선 때 '이낙연 선거 캠프'에서 일하다 대선 정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공개 지지 선언하면서 민주당 분열의 한축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장본인이다.

정 변호사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운현, '윤석열씨' 거론한 최강욱 직격.."野은 '노무현씨-문재인씨'라고 안 불러"] 제목의 한 언론 기사를 캡처해 올리고 정 전 실장을 작심 비판했다.

그는 "나는 10년이 넘게 광복회와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문변호사를 맡고 있고, 독립운동가들의 애국애족 정신을 선양하는 여러 단체에서 활동해왔지만, 친일파 연구로 유명하다는 정운현씨와는 인사도 나눠본 적이 없었다"라며 "단지 그의 이름과 그가 기자 출신으로 친일반민족규명위원회 사무처장을 했다는 정도밖에 몰랐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면, 일반인들에게 그는 이낙연 총리 비서실장이고 이낙연 캠프의 핵심인사라고 널리 알려진 것 같다"라며 "이낙연과 친일청산은 전혀 연결점을 찾을 수 없어서 두 사람의 관계가 늘 의아했던 나는 정씨가 윤석열 지지발표를 한 직후에 그가 총리의 비서실장으로 발탁되고 이낙연 선거캠프 핵심인사가 된 경위를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본 적이 있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알고 보니 정씨는 이낙연씨와 별다른 친분도 없이 누가 소개해줘서 비서실장이 되었던 것일 뿐이고 선거캠프에 들어가게 된 경위는... 한 마디로 코메디였다"라고 꼬집었다.

정 변호사는 "나는 이낙연씨를 민주당 정권을 망친 책임이 있는 사람들 중 하나라고 늘 비판하지만, 정운현씨 때문에 받게된 오해와 비난은 참 억울할 것 같다"라고 비꼬았다.

그는 "이른바 친일파, 즉 친일반역자들의 본질은 기회주의자라는 점"이라며 "기회주의라는 것이 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이가 정운현씨라고 생각한다. 그는 친일파 연구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기회주의는 가장 수익률이 높은 처세술임을 배웠던 모양이다"라고 힐난했다.

마지막으로 정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에서 정운현씨는 아마도 독립기념관장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이번에 민주당 신임 원내대표로 뽑힌 박홍근 의원은 지난 2 월 정 전 실장이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를 공개지지 하자 SNS 로 "변절을 연구 하다가 변절을 실천하는 사람"이라고 통렬히 비판하면서 "폐친을 영원히 삭제 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

정운현 전 실장은 지난 24 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강욱 의원이 윤 당선인을 윤석열씨로 지칭했다고 지적하면서 마치 윤 당선인의 호위무사라도 되는 양 최 의원을 몰아세웠다.

그는 "과거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자 시절에 야당위원이 선거에 패했다고 해서 '노무현씨', '문재인씨'라고 부르진 않았던 것 같소"라면서 "어쨌든 국민 다수의 선택으로 뽑힌 당선자를 예우하는 것은 국민 된 도리라고 본다"라고 일장 훈시를 했다.



정 전 실장은 그러면서 "특히 윤석열 당선자를 두고 '평소의 성정대로 독선과 전횡으로 일관할 것이 뻔한 사람'이라고 한 표현도 과해보인다"면서 "실제로 그럴지 안 그럴지 최 의원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단정해서 얘기 하나"라고 따져 들면서 최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다.

앞서 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나라의 주인은 분명 국민이라는 점을, 윤석열씨의 몸과 마음에 확실히 새겨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망나니들의 장난질에 부서지고 망가지더라도 결코 무릎꿇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무도하고 잔인한 권력은 결코 방치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다는 다짐을 깊이 새기고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겠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면목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봄은 어김없이 새순을 틔우고 있었다. 낙심보다는 황당함이 컸다. 이겨야만 하는 후보고, 선거였기에 결과를 받고 나서는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았다"라고 대선 이후의 심경을 밝혔다.



지| 난 2월 정운현
전 실장이 윤
후보를 공개
지지하자 이번에
원내대표로 선출된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남긴 SNS
글